

설원

2-6 백*재

철길이 매서운 비명을 지르자, 흔들리는 차창이 황량한 설원을 가로질렀다. 뿌옇게 서리 낀 유리창을 닦고 들여보니 기차 밖은 온통 새하얀 눈밭이었다.

변색된 고무로 고정된 유리창에는 이따금 바람에 홀로 나부끼는 앙상한 나무나 낡은 주택 따위가 지나가곤 했다. 허나 그것은 눈이 빗어낸 신기루처럼 폭풍 사이에서 무력이 사라져, 언제나 설원에는 새하얀 눈뿐이다.

애초에. 이곳에 사람이 산 적은 있을까. 나는 속으로 증얼이며 좌석 아래로 몸을 숙였다. 눈 녹은 물이 손끝을 스치며 뜨거운 바람이 훑 불어왔다. 남아 있는 잔열을 얼굴에 가져다 대자, 입김이 창문에 맺혀 뿌옇게 일그러지다 얼마 가지 못해 얼어 부서졌다. 정말 이곳은 말 그대로의 설원이었다.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가. 몸을 약간 기울여 나는 가죽 차체에 기댔다. 설원과의 인연은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였다. 운 나쁘게 역을 놓쳤고, 운 나쁘게 다음 역이 종점인 설원이었다.

대체 언제 종점에 도착할 것인가. 막연히 호주머니를 뒤적였으나 주름 잡힌 왕복표만이 손에 잡혔다. 해는 아득히 저물었음에도 설원은 여전히 새하얗다. 천공 天工의 한가운데서는 천공 穿孔이라도 뚫린 듯, 구름 한 점 없는 회탁의 하늘에서 끝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벌판에 나풀이며 내려앉는다. 숨결이 사라진 기차에는 눈보라의 두들김만이 가득하다. 어스름 내려앉은 차 안과는 달리, 창밖은 어느덧 절정이었다. 철길을 흑건 삼아 활주하는 월광. 온 하늘을 가득 예운 창백한 눈꽃. 나는 모가지 위 달린 12파운드짜리 진자 운동을 따라 눈꺼풀을 애써 치켜들어 보며 창문에 손을 갖다 붙였다. 고개가 점차 무거워진다.

나는 눈과 같이 힘없이 부스러지는 몸을 이끌고 지평선 너머를 비추는 열차의 파아란 전조 빛을 바라봤다. 바라보던 친구가 쏟아지는 눈으로 가득 묻히는 것을. 수십, 수백의 유성들이. 흰 꼬리표를 달고 저 멀리서부터 낙하하는 모습을 막연히 지켜보며 나 또한 막연함에 이끌려 저 별 무리 사이로 섞여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았다.

눈꽃들은 차창의 열기에 휩쓸려 점차 녹아갔다. 열차가 질주하기 시작할 제, 연결망의 문이 뼈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름진 입을 벌렸다. 일등석에서 내려온 남자는 기다란 외투 위에 고급스러운 담요를 걸치고 새하얀 바닥을 밟으며 칸을 거닌다. 나는 문득 눈이 부서지는, 그의 발아래에서 검은 탁류를 먹어 치우고 압력에 짓눌리는 희한한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차장은 차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카만 먹이를 게걸스레 해치운 철차의 두우—하는 소리를 따라 고개를 까딱이며, 어스름하니 눈을 뜨고 있다 느릿느릿하게 발을 옮겼다.

"눈이 많이 옵니다."

"설원이니까. 설원에서 눈이 오는 건 한탄할 수가 없는 일이야. 몇 번을 탔으니 익숙해져야지."

"밖은 어떻습니까? 종점에서 이렇게 눈이 내립니까? 제발, 전만큼만 안 내린다면 좋을 텐데요."

"알잖나. 다른 역무원들도 그곳에서 내리는 눈만 보면 치를 떤다고. 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는 않아. 어차피 온종일 죽어라 내리니까."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되려 들으라는 듯 크게 중얼거렸다.

"그 전에 내리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을 텐데. 방송이라도 하셨으면..."

"그걸 어쩌겠나. 설원에는 의사意思가 없어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타고 싶으면 타는 게 불가하지. 우연히 깬다면 내리게 되고, 기막힌 우연으로 승차장에서 내리지 못했다면 설원까지 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편도행이란 말입니다."

차장은 아— 하고 탄식했다. 나는 그의 안타깝다는 표정이 눈에 은근히 메아리치듯 보여 이제 다 끝난 일이라 생각하였다. 창밖 눈 폭풍 몰아치는 소리가 툭 하고 종단을 맺어 떨어지는 듯했다. 남자는 일말의 기대라도 품은 듯 비굴할 정도로 손을 모아 억지웃음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눈이 많이 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설원이 정하는 거지. 눈바람이 많이 분다면 한참은 부족할 테고 아니라면... 나도 모르겠네. 미안하지만 더는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모든 것은 자네의 운에 달렸네."

그는 돌아가는 차장에게 희미한 미소를 남기고서야 일등칸으로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처음 보였던 위압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드리워 있었다. 문득 무의식의 한켠에서 생각이 벼락같이 떨어졌다.

설원은 그 어느 곳보다 평등하다. 기차에서는 일등칸과 꼬리칸이 나뉘어 있을지 몰라도, 모두의 끝은 설원이다. 설원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등 쓸모가 없다. 부와 명예조차 방대한 설원과 비교한다면 무의미했다. 열차 속 모두가 달려든다 한들 설원의 티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 냉혹한 미의 헌신은 그 누구도 품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지도 않다. 설원에 가 본 사람 중 돌아온 이는 극소수이며 그것에 추위와 혹독함이 모두 과장이라는, 그런 자신에 가득 찬 여러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설원이 가득 미지에 싸인 곳이며, 차가우나 그 깊이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깊은 심해와도 같은 곳이라는 것이다.

춥다 해도 얼마나 추워서 저럴까. 대체 왕복이랑 편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남자의 기행을 되짚어봤다. 그의 어조와 부와 태도가 뇌리에 꽃혀 오버랩되며 차창 밖의 눈바람이 애써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래. 뭐라 하라. 나는 머리를 차창에 들이민다. 이마 한편이 시퍼렇게 얼어간다.

창밖에서는 정점에 올랐던 태양이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황도의 잔영을 몰아내며 차가운 푸른 별이 다시 떠올랐다. 철로마저 얼어붙었는지 열차는 쉴 새 없이 덜컹거리며 설원을 질주했다. 백야였다.

나는 순식간에 차올라 기울어지는 희미한 별을 바라봤다. 설원은 매일이 백야다. 몰아치는 폭설 탓에 밤의 본질마저 침범되는. 철로를 끝없이 질주하는 열차. 설원의 수면 위로 침잠하는 월광. 그 끝자락에서 무력하게 흔들리는 월하 속 창성의 신탁.

-2-

아아. 나는 무엇을 보고 있던가. 설원은 양면의 것이다. 수만 겁의 세월 간 쌓여 온 불멸의 설원과 순식간에 녹아 사라져 버릴 듯한 처량하고도 열은 유한함의 설원. 끝없이 내리는 눈은 그것의 거대한 존재를 더하기 위한 탐욕의 산물인가, 허장성세를 가리기 위한 교묘한 눈속임인가.

달은 쉬지 않고 기이한 예언을 뱉어냈다. 온 하늘은 녹아 흘러내렸다가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어 경적에 맞추어 특유의 광언을, 창성蒼星이 깜빡이는 리듬의 한편을 타고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얼어가는 허리 죽지를 쪽 꺾다. 이 모든 게 설원의 환영이라. 나무는 흔들려 손과 같이 보인다. 설원이, 설원이 내게 말을 걸고 있다. 나는 저절로 내려앉는 눈을 애써 부릅떠 본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온 세상이 검게 점멸하며 조금씩 어둠에 묻혀 간다.

그러다 뚜— 하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다.

온 하늘이 울렁거리고 흐늘흐늘하게 늘어지며 열차가 수평 끝자락으로 쭈욱 늘어나다 종단에 멎었다. 도착을 알리는 종이 세 번 치자 괴기한 비명을 본뜬 날카로운 마찰음이 열차에 가득 퍼졌다.

-3-

얼어붙은 철로에 미끄러지듯 멈추자 문이 열리며 서늘한 냉기가 살갓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쪽 내뺀어 밖을 살펴봤다. 밖은 희뿌연 무운을 닮은 것들이 지평선까지 드리웠는데, 자세히 바라보니 눈의 무리였다. 바벨의 사탑을 본뜬 거대한 설산이 눈안개를 뚫고 서 있다.

문득 고개를 치켜들어 보니 반쯤 잘린 달이 여덟 별들과 함께 발광하고 있다. 한없이 떨어지는 눈 사이에 파문혀 별빛의 꼬리표밖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장엄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듯 끝없이 뒹치며 저의 기다란 팔 줄기를 퍼덕여 사방에 푸른 빛을 흩뿌렸다. 불현듯이 그것이 내게 말을 걸으려 제 손을 뻗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둘 떨어지는 눈꽃을 향해 양팔을 쪽 펼쳐 손아귀에서 흐트러지는 꽃잎들을 마주했다. 아무리 닿으려 애써도 저 창공에 떠 있는 별의 외침은 떨어질 길이 없는 듯하여 펍 아쉬워 보였다. 나는 이산離散한 인간처럼 무기력하게 자리에 앉아 환상을 떠올려 본다. 몽환 속에서 그것은 내 허리춤을 붙잡고 무어라 속삭였다. 달은 검은 양복과 기다란 장도를 든 기이한 풍채다. 나는 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갈취하기를 기다렸으나 사나운 종소리가 울리며 환상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눈을 뜨니 이미 모두가 내린 기차에 나와 차장 둘만이 남아 있었다.

차장은 플래시를 들고 피로에 젖은 눈을 한 채, 열차 꼬트머리에 기울여 있던 발을 내렸다. 부풀어 쌓여 있던 얼음 결정들이 한순간 놀리며 거울 닦는 듯한 소리가 난다. 나는 저 설산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 아름다운 곳에 얼마나 있어야 하나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몽롱한 첫발을 내디뎌 보았다. 숨결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며 차갑게 얼어갔다. 나는 그것에 기이한 상쾌함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못해 어깨에 희뿌연 눈 알갱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워지는 등줄기를 펴고 걸었다. 걸을 때마다 밀창에서 눈 으그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정표에는 눈이 쌓이다 못해 얼어버려 이 길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달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것의 명에 내 목줄을 걸고 이리저리 떠오르는 대로 걷는다. 가슴이 답답하고도 상쾌하다.

-3-

나는 맥없이 돌아다녔다. 마을 비슷한 원경의 환영을 찾을 제는 이미 몇 시각이 지나 있었다. 발이 시리다. 나는 이것이 동상의 징조라고, 문둥이의 사지를 닮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가가니 그것은 빈촌이다. 한 천막을 지날 때마다 문 틈새에서 피골이 상접한 인종이 시퍼런 눈깔을 번뜩였다. 그들은 죽어서도 저 외견과 다르지 않으리라. 저 가냘픈 살가죽을 벗기면 구루병 걸린 골격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 나는 무감각해지는 사지를 이끌고 또 한 번 휘청휘청 비트적대며 걷는다. 어느덧 그 누더기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다시금 백야다.

-4-

눈발에 걸친 석양이 지워질 적에, 외진 길 끝에서 고성당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다. 성당은 폭설에서도 곳곳이 선 채 창가 틈새에서 빗줄기들을 은은히 흘러트리고 있었다. 나는 다리를 절며 성당의 대문으로 향했다. 그곳 꽃밭에서는 얼어 죽은 풀들이 눈의 씨앗을 받아 이 파리에 새하얀 서리꽃을 피워내 있었다. 나는 총총한 별빛 사이에서 반짝이는, 녹다 얼어붙은 그 은근한 푸른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것들은 생자의 빛이라기보단 사자(死者)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나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성당의 문을 열었다. 들어가자마자 바람결에 문이 쿵 하고 닫히며 걸쇠가 단두대 내리치듯 순식간에 떨어졌다. 나는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황금 마리아상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본 것이 망자 예수의 암색 눈알 속에 일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아까 본 걸인들의 사지를 닮았다는 것을 떠올렸다가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신의 신성한 죽음이 어찌 설원 속 이들과 같을까. 나는 난잡한 머릿속을 애써 정리하며 상아래 쓰여있는 로마자 글귀를 읽어 보았다. 피에타. 피에타...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은촛대를 든 신부가 내게 손짓하고 있다. 나는 별수 없다고 여겨 억지로 태연한 차림을 하며 비명을 토하는 오체를 이끌며 따랐다. 촛대의 그림자가 복도 벽들의 돌출부를 따라 흐늘흐늘하였다. 길게 늘어선 숙직실에는 저마다 죽어가는 인간이 하나씩 박혀 있다. 나는 비좁은 삼 쪽의 방마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꼭 양계장을 닮았다 생각했다. 신이 치우는 닭이 된 듯하였다.

나는 쪽방을 둘러봤다. 문 앞 곧바로 낡아 삭은 침상이 있고, 사방에는 흰 보자기 덮인 잡다한 물건들이 구석 한편에 처박혀 있다. 등불은 무너진 촛대를 대신한 채로 촛불을 닮은 미약한 불빛을 피워낸다. 설원에 가득하던 달빛은 콘크리트 벽에 잡아먹혀 구릿빛 필라멘트의 휘광만이 처량히 펴럭였다. 어쩌서 설원은 그 월광을 이곳까지 드리우지 않는가. 나는 그것이 기쁘고도 아쉬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봤다. 세 뺨 채 못 되는 화폭이 조잡한 액자에 박혀 달랑거리고 있었다. 꺼내 드니 그것에는 조출한 설원이 담겨 함박눈을 여실 없이 뿌려대고 있다. 나는 어쩐지 설원이 그리웠다. 그래 무작정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전혀 열리지 않았다. 신부가 나를 가 뒤 놓은 모양새다. 몇 번 더 손잡이를 잡았다 두들겨 보았으나 소용이 없다. 나는 포기하고 침상에 걸터앉아 보았다. 그곳에 틀어박혀 무료히 먼지 쌓인 그림을 닦아보니 서명 옆에 갈겨 쓴 숫자가 있다. 모양새를 보니 2 같다.

이불 속에 틀어박힌 채 무력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나에게 영 맞지 않는 것이기에 나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문득 저 천으로 덮인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번뜩였다.

나는 일어서 방안을 빙글빙글 돌아봤다. 사지가 시원찮아 한 템포 늦게 따르자, 오기로 더 빠르게 휘몰아치듯 돌았다. 문지방이 쪽 늘어져 선회하고 천장 등불 아래로 캡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비틀려 회오리친다. 머릿속이 빙글거리는 것이 나는 썩 마음에 들었다.

문득 희끄무레한 것이 지나가 멈춰 보니, 빛바랜 천 쪼가리 밑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다. 난 불현듯 그것을 뒤집어 봤다. 또 다른 화폭이 먼지를 눈처럼 뒤집어쓴 채 힐끗 낮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자우룩이 내리는 분진을 털어내고 그것의 프레임을 들여봤다. 수채화다.

나는 목덜미를 길게 빼고 낮보았다. 실로 그것은 인세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설원을 배경 삼아 남자가 턱언저리까지 다가온 얼음 단두대의 흉상을 보고 비뚜름히 웃고 있었다. 옆에는 마리아가 애수에 찬 표정으로 아기 예수의 손을 끌고 단두대의 밧줄을 쥐여 주고 있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나 또한 저 남자와 같다고….

내 목숨은 설원에 달려 있다. 비록 설원에 내가 아이러니한 애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손모가지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실로 허망한 것은 예수 또한 마리아의 목각인형에 불과해 설원이 빛은 칼날의 행방은 신탁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설원이, 수만 년간 쌓인 눈더미가 인간 마리아의 부속에 불과하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왜 마리아를 인간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그녀 또한 신의 운명 놀음에서 노니는 부속품에 불가하지 않은가? 이편에 선 운명의 칼날은 어떤 의지도 없이 일률적인 강하를 선언할 것이다. 마리아와 예수는 필연의 수레바퀴를 따라 일순을 반복한다. 내가 웃건 울건 사지를 비틀어대며 발악하던 그 결말은 나의 뜻을 벗어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돌연 퐁퐁거리는 소리가 울리고 신부가 들어왔다. 내가 성당의 것을 만졌다는 걸 숨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신부는 자애로이 웃으며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말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당신 방의 전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 천 쪽들로 가려져 있던 캔버스들을 찢히며 말하였다.

“수개월 전 왔던 자로 직접 몇 번 도구들을 조달해 주었는데, 왕복표를 가지고도 불행이 돌아갈 기차를 번번이 놓쳐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날아갔소. 붓을 못 잡게 되었으니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러니 금방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접어 두는 게 좋소. 그 모든 것이 우연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시피 하다는 말이요.”

나는 애써 불경스러워 보이지 않게 노력하며 말해 보았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화가로서의 재능을 앗아간 신에게 증오를 지니고 있을 테니 원망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것이 얼핏 들으니 옳아 보였다. 또 고작 그따위 것에 신부와 이곳의 자비를 내팽개치고 불경을 폄하였다가 것이 떠올라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신부는 성호를 그으며 살집 오른 입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는 달콤한 소리를 했다. 이 무슨 생똥맞은 소리가 싫어 멍하니 쳐다보니 마침 관리인이 실종된 즈음인데, 사지도 제대로 달렸으니 몸만 쓸 수 있다면 상관없을 거라는 말로 답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일하는 데 신앙심 따위는 상관없다는 의도보단 이곳에 몸 성히 있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에서 나온 놀라움이다. 성당은 황금과 은으로 치장해 났거늘 병자들의 치료에는 쓸 것이 없다는 말인가. 어쨌든 내게는 좋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로 성당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할 일이라곤 청소와 기부금 정리밖에 없는데 회계는 신부가 건드리는 것을 금해 일의 메뉴얼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그 때 나는 온종일 금상만 닦고 있다. 신부의 말로는 자신은 이 피에타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등 뒤로 보이는 신성한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겠다는데 나로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무지와 불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며 몇 번 기도도 해보았으나 도통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기차나 빨리 오게 해 달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석 달간 기차의 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신은 딱 치졸한 사람이라 생각하였다.

또 신부는 때로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금박 조각리들을 던져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숙식은 모두 성당 안에서 해결하는데, 황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나는 대체 이 설원 어디에서 그런 것을 쓸 일이 있는 것인가 하고 대충 방구석 어딘가에 박아 두었다 신부가 그것을 자꾸 훑어보는 것을 알고 다시 가져다주었다. 신부는 신께 기부하는 것이라며 제 방에 넣어 뒀는데, 주고 뺏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게 남는 것은 시간이기에 나는 때때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신부의 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언젠가 한 번쯤 장부에서 기부액과 남은 돈이 맞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어찌 그를 내가 의심할 수 있는가? 난 감히 불경한 자신이 신부를 음해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침대에 폭 처박혀 있었다. 그의 몸이 붙어가는 것은 내가 눈이 뻘어진 탓이고, 피에타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일 터였다. 그러다 어쩐지 피에타의 금박이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신부에게 말한 적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신께서 다시 가져간 것이라는 말로 일축하였다. 그것이 우스꽝스럽고도 이상해 뭐라 답하려 했으나 그의 서늘한 눈이 무서워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신이 아닌 신부가 기르는 닭이 돼버린 모양이다.

그러다 문에서 쿵쿵 소리가 나며 신부가 배로 붙은 몸뚱이를 끌고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자 옆 방 노파가 곧 죽을 모양이니 묘지기와 함께 데려가라 명했다. 나는 설마 진짜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애써 몸을 너희적대며 느릿하게 움직이다 신부의 쏘아붙이는 눈빛에 겁싸게 도망쳤다. 그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흉악한 일인가.

와 보니 얼굴이 창백한 묘지기가 검은 옷을 뒤집어쓴 채 성호를 긋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혀 내가 무엇을 할지조차 잊어버렸다. 실낱같은 생의 희망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노파의 모습이, 온몸이 차게 얼어붙은 채 허공에 식어가는 입김을 내뿜는 그녀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통 하고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려 애써 보며 몸을 뒤로 내뺐다. 노파는 자오선의 움직임을 잡아채려 허우적대며 묵직한 공기를 갈랐다. 남루한 옷소매가 순간을 잡아당기며 놓지 않는다. 나는 그 속에서 모가지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던 한 그림을 회상해 보았다. 그러나 위압적이던 공포도 쓴살같이 흩어져 그녀의 주름살 가득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에게 설원이 행한 무자비한 운명의 애환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서글픔에 취해 그녀의 발버둥을 애잔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몸뚱이를 꿈틀대며 얼굴에 고통을 피워낼 때마다 나의 살이 찢어지고 가슴에 정이 박히는 듯했다. 또, 신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원망만이 떠오른다. 노파는 계속해 무어라 중얼거리다 운명을 받아들인 듯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리뿐다. 창 밖에서 비치는 달의 빛이 마치 성자에게 주어지는 후광 같다. 온 방이 그녀의 숨소리를 따라 잔잔히 파문처럼 흔들리는 듯하였다. 나는 그 일말의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워 버티지 못할 노릇이다.

그러더니 노파는 억- 하는 단말마를 내지르며 멈추었다. 나는 생을 갈구하며 타오르던 그녀의 시퍼런 불뚱이 나의 심장에 붙어 매섭게 타오르는 듯하였다. 어쩐지 눈시울이 뜨겁다.

신부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은 십자를 가지고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기도를 하였다. 나는 망자의 손아귀가 내 바지춤을 잡고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부가 냉정히 떠나서야 내 속의 어떤 것이 깨지는 소리가 나며 발이 떨어졌다. 나는 수레 위에 신을 올리는 묘지기를 도우며 성당 밖으로 나왔다.

묘지기는 묵묵히 걸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설원 전역에서 수많은 별이 실처럼 늘어진 채 낙하하고 있었다. 눈의 차가운 강하 속에서 우리는 수백 걸음을 걸었다. 온몸이 뜨거운 것이 출지는 않다.

얼마 가지 않아 구덩이 하나 앞에서 멈춰 섰다. 그 네모나게 파인 눈구덩이는 마치 관과도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많은 목재 십자들이 사방에 꽂혀 있었다. 묘지기는 노파를 고이 들어 그곳에 입관한다. 그녀를 들어 올리는 묘지기를 보니 마치 피에타와도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조각상에서도 보지 못했던 신성의 불길을 봤다.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직전의 노파와 그녀의 마지막을 수습하는 묘지기가 오버랩되어, 나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견디지 못하였다. 문득 그의 머리 뒤에서 빛나고 있는 달이 광배와도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그 길로 성당의 돌아가 밤낮을 침대 속에서 보냈다. 신부는 이제는 내게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매일 밤 나는 설원이 두렵고도 아름다워, 이불을 꼭 뒤집어쓴 채 애써 눈을 감은 채 있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십자를 볼 때마다 그것이 무미건조한 하나의 기계와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 설원을 대면하며 느꼈던 이유 모를 경배심은 사라진 지 오래다.

신부는 무얼 하고 있던가? 죽음 앞에서도 냉혹하던 그야말로 설원이 빛어 낸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의문스러움을 품어 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되물어 보아도 성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석괴石塊와 같은 입을 다물고 어느 답도 내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방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하며 매일 밤 내 꿈에는 설원이 쌓여 갔다.

내게 설원이란 승배와 애증 그 사이의 것이다. 눈을 감으면 하늘에서 새하얀 눈이 한없이 쏟아지고, 늘어져 가는 새벽녘 태양의 기다란 꼬리를 따라 휘몰아치는 백설(白雪)의 회오리가 깊은 무의식의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졌다. 그 끝은 언제나 노파, 혹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맺어졌다. 설원의 냉혹함을 몸소 직면하면서도 그것의 아름다움과 탐미를 향한 내 본성은 은근한 두려움을 억압하고, 보아라. 이것이 설원이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죽음 끝자락에서 피어난 유한성의 성스러움이 설원에 있었고, 있었으며,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불변의 진리일 거라고 설원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몽환 속에서 깨어나며 매일같이 응답자 정해지지 않은 소망을 빌어 보았다. 내가 어찌 해야 하느냐고.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묵언의 밤 속에서 나는 계속해 설원을 꿈꾸었다. 꿈에서 나는 설원 앞에 압도되어 그것의 아름다움을 향해 종착지 없는 승배를 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높아져 가며 머리를 조아리는 나의 모습을 비출 뿐이다.

나는 그날 밤 피에타를 보러 갔다. 금으로 뒤덮여 있던 피에타상은 대리석 골격을 들어낸 채 섬뜩하게 존재했다. 똑같이 창밖에서 드리우는 달빛임에도 나는 그것에서 묘지기와 같은 신성의 불꽃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시체와 같은 기이함만이 가득했다.

불현듯 예수의 눈가에서 무언가 주르륵하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닦아보았다. 비릿하고도 진득한 것이 꼭 눈의 물이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멍하니 바라봤다. 웬 타르를 닦은 끈적끈적한 것이 눈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목덜미를 훑어보니 날카로우니 새파란 게 서리 같았다.

나는 또 마리아상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입가에 서린 애잔한 웃음이, 울음과 실소 사이 무언가의 감각이 어쩐지 섬뜩해 견딜 수 없었다. 어디서 내가 신성을 봐야 하는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애써 연구해 보았다. 설원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내게 일말의 안식처마저 빼앗으려는 것인가? 나는 마리아가 예수를 들어 올리는 것이 던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낙하를 위해서는 상승이 불가피하다. 모든 이적은 인간과 신 사이인 예수의 낙하를 위함이 아닌가.

혼란스러운 심상을 비켜 창밖을 바라봤다. 은은한 빛의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설원의 아름다움이, 그것의 서늘함에 홀로 움츠려 있던 내 모습이 창에 비쳤다.

만약, 설원을 무너트려야 한다면 어쩔까.

나는 무의미한 가정을 애써 뇌리에서 지워 보았다. 그것은 내 인력을 벗어난 숭배의 대상이다. 설원은 하나의 신이자 불멸의 것일 터였다. 인세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어 온 냉혹한 설원은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의 신이 예수라면, 만인의 신은 설원이다. 허나 정말 설원을 무너트려야 한다면...

내게 설원은 영원불변할 존재로서 있는 설원인가? 무력한 자의식이 빚어낸 거대한 허상인가? 나는 애써 외면하며 성모상의 연구로 돌아갔다. 내 비루한 세계와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해법인 듯했다.

신부는 더는 성당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살아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겠다. 언제나 같이 기부금을 방 앞에 내려놓으면 어느샌가 사라졌다는 것에 존재를 어렵풋이나마 가늠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받아가는 자가 신부인지, 혹은 그의 가족을 뒤집어쓴 다른 이인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다. 처음 보았던 그의 순수한 호의를 곱씹어 보니, 내가 수시로 가져다준 기부금 봉투가 그를 살찌워 죽인 것이 아닌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고귀함에 감화된 이들이 도려 신부를 망가트렸다는 생각에 무심코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성당은 여전히 여전하다. 나는 작은 시계를 돌리는 태엽이 되는 듯하였다. 나의 손짓에 따라 성당 전체가 삐걱거리며 다른 톱니들을 돌리고, 끝내 톱니와 비교조차 되지도 않는 거대한 시침을 한 시진씩 옮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피로하다. 그것은 내게 흥겨운 놀이보다는 고된 노동에 가깝다. 내 정신의 자위를 위해 행하는 비싼 값의 일이다. 매일같이 시신을 옮기고 무의미한 금상을 닦는 짓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는 전무하다. 시신을 옮기는 짓은 나라는 태엽의 톱니를 마모시키는 행위였는지, 그들의 눈에 비친 회탁의 설원을 마주할 때마다 꿈속의 설원은 그것을 먹어치워 성장하는 듯하였다. 어느새 그것은 나를 파묻어버렸다.

나는 피에타를 닦으며 생각해 보았다. 왜 내게는 성모상의 광휘가 보이지 않는지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올려도 그것에서는 금칠을 잃어버린 석상의 처량함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죽음 직전의 비장미라는 것이 흐릿하게나마 보이긴 했으나 무미건조한 대리석의 투박함을 빼고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성스러운 빛이라는 것이 어찌 저 돌덩이에 담겨 있을까?

나는 계속해 외쳐 보았다. 왜 내게는 설원을 벗어날 기적을 주지 않느냐고. 당신이라면 설원 따위는 손짓만으로 없애 버릴 이적이 있지 않느냐고... 문득 창밖에서 무언가 새 파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내게 손짓하는 듯 보였다.

나는 무작정 나와 그것을 따라가 보았다. 언젠가 봐 둔 빈촌이다. 그곳에 앉아 오가는 인간들을 지켜보니 여전히 초췌하고 메마른 이들이 굶주려 돌아다니며 설원에서 발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무엇보다 큰 감회였다. 그곳의 누구에게도 신의 무력한 메아리는 들리지 않는다. 천당의 약속과 부귀도 현실의 설원을 앗아가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이상에 빠져 살거나, 현실을 발버둥 치거나의 이지선다밖에 남지 않았다.

아아. 나사렛 예수는 그저 나사에 부과했던 것이 아닌가. 사상의 못을 맞추기 위한 만들어진 신이 아니던가. 피에타상의 성모는 단지 비애에 찬 인간들일 뿐이다. 그 어디에 성스러움이 있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표를 쥐었다. 설원은 또 나에게 말하는가 보다. 너는 우상을 숭배하며 나를 외면하였다고. 숭배자들 없이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며, 인세가 끝나기까지 떠나지 않을 설원을 내버렸다고... 설원의 바람이 오늘따라 시리다. 이토록 추운 것은 처음이다. 나는 오늘에서야 진정한 설원을 마주한 것이리라...

나는 설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원을 향한 순례이자 복종의 의식이다. 지나가며 얼어 죽은 망자의 육신이 보이고, 얼음 속 파묻힌 관들이 보이고, 황금과 신성으로 쌓은 안식처들이 보였다. 그러다 어떠한 것이 내 육안을 강타했다. 온통 훼손된 살점들이 사방에 낭자하였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아사한 이가 보였다. 추위에 얼어붙어 굳어버린 이가 보였다. 배고픔 속에서 일말의 인간성마저 버린 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버린 이가 보였다.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피에타다. 설원이 보여준 죽음 끝자락의 고귀한 아름다움이 아닌, 참혹함과 비참함만이 가득한 피에타다. 설원— 그것이 비웃으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숨이 가쁘다.

그들의 운명이란 모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한 사람도 얼어붙은 끝에는 묘지기조차 끝을 맞이할 것이다. 허나 그를. 그의 신성한 책무를 이어갈 자가 있을까. 묘지기는 관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두가 묻힌 설원에서 쓸쓸히 얼어붙은 채, 설원으로 오는 승객들을 맞이할 새 이정표가 될 터였다.

속이 메스껍다. 역지로 구토를 해보려 해도 나오는 것은 없이 얼음에 내 얼굴만이 비춰 보인다. 그것이 더 구역질이 나, 더는 땅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다. 어쩌면, 나 또한 이런 운명일지 모른다. 설원이 되고, 눈이 되고, 서리가 되어 하늘에서 작은 티끌로 흩날릴 운명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설원의 영속을 위한 고결한 희생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설원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필연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나는, 무얼 하고 있던 건가. 내 비루한 자존감과 무기력을 감추기 위해 애써 설원의 참혹함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닌가. 세상 어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있단 말인가. 설원을 무너트려야 한다. 설원을. 무너트려야 한다.

말을 입에 옮긴 순간 환상이 깨졌다.

눈의 겹질이 벗겨지며 세상이 환하게 보였다. 너무나 위압적이게 보이던 거대한 설산은 그저 흠날리는 눈의 신기루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그저 높은 눈 무더기다. 더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열차의 경적이 귀에서 아른거렸다. 왕복표를 움켜쥐고, 나는 설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하늘에서는 눈송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눈꽃 한 송이를 받아 들여봤다. 하얀 불가사리를 닮은 오각의 결정이 제 다리를 사방으로 뻗으려다 멈춰 있었다. 그것은 새빨강계 달아오른 손안에서 이리저리 비틀려 녹아 사라졌다. 손바닥에서 물방울 하나가 맺고, 다시 힘없이 또르르 바닥에 떨어졌다. 새하얀 눈발에는 한 방울의 움푹 파인 흔적이 생겼다.

나는 무언의 탄식을 내뿜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백야. 백야... 검은 하늘을 배경 삼아 하얀 별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땅에 떨어진 별은 바닥을 뺨처럼 기며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다. 그것은 하얀 냉기의 파도였다. 새하얀 눈꽃들은 서로 왈츠를 추며 냉랭한 면사포를 허공에서 늘어뜨린다. 백야. 하늘은 검었으나 밤은 새하였다. 그러니. 백야. 백야 속의 흰 유성우들. 얼음장과 같은 차가운 추위에서도 나는, 가슴 어딘가가 뜨겁다 못해 끓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오르다, 이 공허한 설원에, 이유 모를 애정과 연민 그리고, 일말의 허탈함. 그것은 설원에서 봐 온 최고의 절경이었다.

나는 계속해 설산을 올랐다. 눈바람과 함께 두 발을 맞춰 걷다가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다. 눈꽃들은 이리저리 흐트러져 내리며 손가락에 스쳐 지나간다. 나는 그 백탁의 산을 올려다보며 걸었다. 온 세상이 눈에 휩싸여 휘적휘적하며 울렁인다. 하늘에 가까워지며 지상의 빛이 별과 같이 작아졌다. 나는 이 끝에 있는 승차장이 나를 설원 밖으로 데려다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때맞춰 온 기차가 설원의 손아귀를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리를 옮기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는 모른다. 머리는 어느 때보다 상쾌한데도 몸은 끈적한 것이 내 걸음을 잡아채는 듯 느끼고도 고통스럽다. 나는 설원을 죽일 표를 움켜쥐었다. 퓨즈처럼 뜨겁게 발광하는 눈을 향해 표를 단도마냥 내리치며 걸었다.

나는 신부와 설원을 머리에서 잘라 내었다. 설원에 오며 남겨져 있던 일말의 아쉬움과 미련을 잘라 내었다. 다리를 돌리라며 새빨간 혀를 놀리고 있는 설원을 머릿속에서 잘라 내었다. 그러다 보니 승차장이 눈앞에 도래해 있었다.

그곳에서는 설원이 모두 내려다보였다. 스러져가는 작은 눈꽃 하나하나와 아련한 생명이 설산 위에선 그저 말라 비틀어져 가는 눈에 불과했다. 나는 몸뚱이를 꾸벅이며 의자에 앉았다. 눈두덩이가 피로한 것이 감으면 더 뜨지 못 할 노릇이다. 온 세상이 수도꼭지를 연 듯 밤하늘에 빨려가려는 저에, 저 멀리 바람 사이로 경적이 들리더니, 푸른 불빛이 떨어지는 눈꽃을 찢으며 질주했다.

불현듯 나는 온몸이 개운하다. 그것은 내 사지에 달라붙어 있던 눈꽃이 녹아 흐르는 것이다. 온 하늘이 달빛에 갈라지며 헤드라이트가 천공을 비춘다. 별이 내린 신탁은 새파란 전 조등을 따라 흘러오며 내게 선포하는 듯하였다. 머리가 새맑다.

나는 열차에 올라타며 별의 부름을 곱씹어 본다.
너는 설원의 예속에서 벗어났노라고. 영원으로 치장하던 설원은, 이제 너의 발아래서 산산이 녹아 부스러질 것이라고 하며.

수상 소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느낀 죽음과 비참함에 대해 이런 것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그것이 설원이라는 주제를 고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설원은 고통의 원인들의 추상적인 집합이라 생각하며 써 보았습니다. 언제든 우연히 죽음 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기차의 종착지인 설원으로 표현하려 했으며, 그 원인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순응하는 태도의 변화를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종교를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양한 종교를 성당으로 대표해 그 안에서 편의와 안정을 제공받으면서도 무언가 모순됨을 느끼는 화자를 통해 종교하는 것이 도피처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극복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려 했고, 타락한 종교인을 신부로서 표현하려 했습니다.

승차장에서 화자가 설원의 끝을 생각하며 돌아가는 열차에 타는 것은 설원에 있던 화자가 결국 극복의지를 다지며, 화자의 힘으로 이러한 고통들의 원인들 타파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처럼 독자들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